

나주 홍어의 거리 새단장 '명품 음식거리' 탈바꿈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보고회...연말까지 시설 개선 사업 홍어 콘텐츠 문화관·조형물·기념사진 촬영 공간 등 들어서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가 전남을 대표하는 음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새 단장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영산포 홍어의 거리 일원을 남도음식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제작·설치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영산포 홍어의 거리는 600년 전통을 지닌 속성 홍어를 맛볼 수 있는 구역이다. 홍어 전문 음식점 8곳과 홍어 판매업소 10곳이 밀집했다. 지난날에는 20회를 맞은 '영산포 홍어 축제'를 열어 9만5000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도비 5억원 등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나주시는 홍어의 거리가 '명품 음식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구역에는 홍어 콘텐츠 문화관과 대형 조형물, 종합 안내 표지판, 기념사진 촬영 공간 등이 들어선다. 홍어의 거리 특색을 반영하는 간판도 제작한다. 나주시는 ㈜공공디자인연구소에 공공시설물 제작·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주무부서인 보건행정과와 도시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영산포발전기획단, 영산동, 이장동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홍어 상품 개발법을 논의하고, 홍어의 거리 기존 경관과 어울리는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홍어의 거리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성을 검토하고, 상인단체 연계·협력,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어의 거리는 남도음식거리뿐만 아니라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되면서 상권 활성화의 기회를 맞았다.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근 영산간 저류지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나주



나주 영산포 홍어의 거리가 연말까지 외식문화 개선과 특색있는 경관을 통해 '명품 남도음식거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나주시 제공>

시의 대표 축제인 '나주 영산강 축제'도 열린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홍어의 거리가 음식 맛뿐 아니라 보는 것으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을 만들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쾌적하고 친절한 식당

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왜 속성 홍어가 나주 영산포에서 발전했고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대접 받게 됐는지에 대한 홍어 문화관 콘텐츠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장흥 장평 노선지구 침수피해 예방사업 공정률 55%

김성 군수 공사현장 점검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피해가 잦은 장흥 장평 노선지구가 재해예방사업 공정률 55%를 보인다. 장흥군은 지난 11일 김성 장흥군수가 장평 노선지구 재해예방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사업장을 찾아 공사 추진현황과 집중호우 대비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장평 노선지구는 지난 2021년 9월 자연재해취약지구로 지정됐다.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총 80억원을 들여 지난해 1월부터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오래된 봉동교를 재가설하고 있으며, 이 공사 공정률은 이달 현재 55%를 나타내고 있다. 용강교 보수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장평면과 장동면 조양마을을 연결하는 보성강 횡단 기존 교량 2곳은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때 물이 넘치면서 농경지 침수피해의 원인이 돼왔다. 이 교량에는 군내버스와 농기계 등이 통행할 때 교량 폭이 좁아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있



김성(앞줄 왼쪽 두 번째) 장흥군수가 지난 11일 장평 노선지구 재해예방사업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공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공사용 가도를 철거하

겠다"며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희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이 함평군 보건소에서 열린 '실버요가 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보건소 다음달까지 노년층 대상 '실버 요가 교실'

함평군 보건소는 오는 7월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수업은 '한방(韓方)에 유연하게! 실버요가 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함평군 보건소에서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매주 수요일 펼칠 예정이다.

한의학과 요가를 접목한 이 수업은 신체활동량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관절염과 골다공증 질환을 예방하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한방 담당 공중보건과의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 강좌와 명상, 유연성 증진 운동 등에도 참여한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에게 양질의 한방 보건 의료 제공에 한방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담양군, 올해 첫 '인구 늘리기 추진위' 회의

담양군이 지난 11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올해 첫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 분야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년 1차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담양군의 인구 늘리기 신규 시책을 검토했다.

담양군은 올해 청년 취업자에게 면접 등을 위한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담양군 인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

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담양군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는 인구 관련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신규 사업의 발굴·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과 당연직 위원 6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화순팜 6월 '여름 JUNE비' 이벤트

제철 농산물 10% 할인

화순군이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에서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여름 JUNE(준)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할인 이벤트, 구매 후기 이벤트, 사전예약 판매 등으로 추진한다.

할인 쿠폰은 화순팜 회원에게 전 상품 10% 할인 쿠폰(최대 5만원)을 제공하고 신규 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 후기 이벤트는 화순팜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사진과 함께 후기를 작성하면 10명을 선정해 화순팜 상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자두와 매실청은 12일부터 19일까지, 초당 옥수수 19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물가 속 6월을 맞아 제철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한다"며 "더워지는 날씨에 화순팜의 신선한 농특산물로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농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원(왼쪽) 강진군수와 이병삼 강진교육장이 화순회의를 통해 베트남 하우장성교육청과 유학생 유치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신청하세요"

3억원·7500만원 저리 융자

다음달 1일까지 신청 접수

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재촌비농업인) ▲올해 장성군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없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원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을 창업자금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에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다.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로, 농업창업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귀농희망자는 올해 장성으로 전입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며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장성군 전입 이후에만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 대출 취급기관 신용·담보 평가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된다.

장성군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장성군 누리집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내년 베트남 유학생 10명 유치

하우장성교육청과 업무협약

해외 유학생 유치를 열을 올리는 강진군이 내년 베트남 유학생 10명을 받게 됐다.

강진군은 최근 베트남 하우장성교육청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 하우장성에서 중학교 3학년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 내년 3월 전남생명과학고에 입학하게 된다.

강진 유학을 신청한 베트남 학생들은 이달 중순부터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교육지원청, 전남생명과학고와 베트남 하우장성을 찾아 '강진군 해외 유

학생 유치 사업설명회'를 벌이며 유학생 유치를 열을 올렸다.

강진군은 지난 2013년 베트남 하우장성 내 통합현과 자매결연을 하고, 해마다 민관 협력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베트남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게 됐다. 오는 2026년 3월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강진에 전남국제직업고를 신설해 해외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 강진군으로 오게 될 베트남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베트남인들까지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